‘4등’의 일등공신 13살 샛별 유재상의 발견

내일 개봉 ‘4등’ 완성도 높인 연기
수영선수 활동 경력 주인공 낙점
단역 오디션 탈락 이색배경 화제

눈에 띄는 재능을 가진 또 한 명의 10대 연기자가 스크린에 등장했다.

13일 개봉하는 ‘4등’(감독 정지우·제작 국가인권위원회)은 유재상(13)이 없었다면 탄생하기 어려웠던 영화다. 초등학생 수영선수와 그의 코치, 극성스러운 엄마가 겪는 이야기에서 주인공 준호 역의 유재상은 성인 연기자들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실력을 보인다. 실제로 수영선수로 활동한 경력은 ‘4등’의 완성도를 높인 기폭제가 됐다.

유재상은 재능은 있지만 출전하는 대회마다 4등에 그치는 수영선수 준호를 연기했다. 드라마 등에서 아역 연기자로 활동한 경력이 거의 없는데다, 이야기를 이끄는 영화 주연도 처음이었지만 실력은 기대 이상이다.

올해 중학교 1학년이 된 유재상은 2년 전 ‘4등’을 촬영했다. 당시 여러 분야에 호기심이 많았던 그는 부모의 도움으로 몇몇 영화 오디션에 도전하고 있었다. 응시한 영화들 가운데 ‘4등’ 역시 포함됐다. 물론 주인공 준호 역은 엄두를 내지 못했고, 짧게 나오는 또 다른 아역 기호 역할로 오디션을 봤다. 하지만 높은 경쟁률을 뚫지 못하고 탈락했다.

그 무렵 제작진 역시 주인공 역을 맡길 10대 연기자를 찾던 중이었다. 무엇보다 수영실력과 연기력을 함께 갖춘 적임자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전국에서 열리는 유소년 수영대회를 빠짐없이 찾아다닌 제작진의 시선을 단번에 잡아 끈 인물이 다름 아닌 ‘오디션 탈락자’ 유재상이었다.

‘4등’ 제작 관계자는 “수영대회에서 유재상을 발견할 때까지만 해도 ‘4등’ 오디션에 응시했던 사실은 몰랐다”며 “다시 심층 오디션을 거쳐 주인공을 맡겼다”고 밝혔다. 실제 수영선수로 활동한 경험도 영향을 미쳤다.

유재상의 ‘발견’ 이후 ‘4등’은 시나리오까지 바뀌었다. 당초 중학교 1, 2학년으로 설정해놓았지만, 주인공의 나이대를 유재상의 실제 나이에 맞춰 초등학교 5학년으로 재설정됐다.

앞서 영화 ‘은교’에서 연기자 김고은을 발굴했던 정지우 감독은 이번 ‘4등’에서는 유재상을 새로운 얼굴로 발탁했다. 정 감독은 “좋은 연기자가 갖고 있는 집중력이나 자존감, 예민함 같은 특징을 유재상이 갖고 있다”고 기대했다.

유재성의 가능성은 ‘4등’이 개봉하기 전부터 영화계 시선을 끌고 있다. 성장 가능성을 향한 기대로 최근에는 배우 류승룡의 소속사와 전속계약까지 맺었다. 그의 다음 출연영화는 송강호 주연의 ‘밀정’이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영화 ‘4등’의 유재상. 사진제공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영화제 자문위원 위촉 효력 정지

부산국제영화제가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추진해온 임시총회가 연기됐다.

부산지법 민사 14부는 부산시가 부산국제영화제(영화제)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규 자문위원 위촉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1일 인용했다. 이로써 배우 하정우와 유지태, 영화감독 류승완 등으로 구성된 영화제 자문위원 68명의 효력이 본안소송 때까지 정지된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영화제와 부산시가 2년째 겪고 있는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21회째를 맞는 올해 영화제의 정상적인 개최 여부마저 불투명해졌다. 특히 각 영화단체들이 영화제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마지막 보루’로 여긴 임시총회 역시 기약 없이 연기되면서 올해 영화제의 전면 보이콧 등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영화제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영화제 독립성을 위한 부산시의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강수연 집행위원장은 “부산시장이 당연직으로 맡던 조직위원장을 민간에 이양한다고 한 만큼 부시장, 국장 등 시 공무원이 임원을 맡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총회가 최고의 의결기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일은 영화제의 자율성을 위한 핵심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연예뉴스 스테이션

송혜교,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 중국 CF 거절

배우 송혜교가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의 중국 CF모델 제의를 거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은 일제강점기 한인 강제노역으로 악명 높은 전범기업으로 꼽힌다. 현재도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송혜교는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의 얼굴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중국 미쓰비시 측의 억대 모델료 제안을 거절했다. 송혜교는 한국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함께 세계 각국의 대한민국 역사 유적지에 한글 안내서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돌 스타 스타일리스트 마약 투약 혐의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유명 아이돌 스타의 스타일리스트 A씨를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코카인과 대마를 수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B씨를 구속하고 판매루트를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빅마우스

● **“유희열과 눈치 없이 버스킹하겠다.” (가수 샘김)** 11일 데뷔앨범 ‘아이 엠 샘’ 쇼케이스에서. 1위 공약을 묻는 질문에.

● **“눈물을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연기할 때 주로 표현한다.” (연기자 임수정)** 11일 MBC FM4U ‘박경림의 두시의 데이트’에서. 평소에는 잘 울지 않는다며.

● **“남고딩들 계탔네.” (누리꾼 song****)** 11일 트와이스의 대만 출신 쯔위가 5월 국내 고교에 진학하게 됐다는 기사 댓글에서.



▲구혜선·안재현 커플



▲유지태·김효진 부부



▲인교진·소이현 부부

‘선행은 사랑을 타고’…구혜선·안재현, 결혼식 비용 기부

스타들의 ‘선행 결혼’이 확산되고 있다. 유지태·김효진, 인교진·소이현 부부 등이 결혼 축의금이나 물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놓은데 이어 5월 결혼하는 구혜선·안재현 커플은 결혼식을 간소화하고 예식 비용을 기부하기로 했다. 연예계 스타들이 뜻 깊게 결혼을 기념하는 모습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스포츠동아 단독보도(4월8·9일자 주말판 1면 참조)로 결혼소식이 알려진 구혜선·안재현 커플은 5월21일 양가 부모에게 인사하는 것으로 혼례를 대신하고, 결혼에 들어갈 비용은 서울 신촌동 연세대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소아병동에 기부하기로 했다. 구혜선이 먼저 기부를 제안했고, 안재현도 흔쾌히 동의했다. 구혜선은 2012년 학과 수석으로 받은 장학금을 다른 학우에게 양보했고, 2013년 재능 기부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전례를 비춰보면, 이들 부부의 기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기자 유지태·김효진, 인교진·소이현 부부, 박진희 등은 축의금을 기부하거나 화환 대신 쌀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했다.

박진희는 2014년 5월 5세 연하 변호사와 결혼하며 축의금 전액을 국제구호단체 한국 JTS에 기부했다. 유지태·김효진 부부는 역시 2011년 12월 결혼하며 축의금 일부를 미얀마 피지다군 학교 건립비용으로 내놓았다. 결혼 후에도 함께 월드비전 홍보대사를 맡으며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왔다. 2013년 7월 결혼한 기성용·한혜진 부부도 축의금 중 6000만원을 월드비전에 기부했다.

인교진·소이현 부부는 2014년 결혼하며 하객들에게 쌀 화환을 부탁했다. 쌀 화환은 모두 누리사랑복지센터에 기부했다. 김경란 아나운서는 지난해 1월6일 결혼식을 올리며 식장 로비에 남수단 아이들 돕기 위한 캠페인 부스를 만들었다.

이밖에 프로야구 롯데 강민호는 작년 12월 SBS 전 기상캐스터 신소연과 결혼식 후 부산 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화환 대신 받은 쌀 740kg을 기부했다. ‘선행부부’로 잘 알려진 션·정혜영 부부는 매일 1만원씩 모아 결혼기념일마다 365만원을 기부하고 있다.

이경후 기자 thiscase@donga.com

편집 |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통기성, 신축성, 활동성 및 흡습·속건 기능성을 갖춘 고기능성 소재

기능성 프리미엄 라운드티셔츠 5종 39,800원



화이트 블루 오렌지 네이비 블랙

등산 · 사이클 · 조깅 · 낚시 등 익스트림 스포츠를 위한 최적의 선택!

국내생산 100% 봄, 여름, 가을 3계절 골프, 등산, 사이클, 조깅, 낚시 등 익스트림 스포츠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기능성 프리미엄 5종세트 라운드 티셔츠는 흡습, 속건 활동성을 극대화하였으며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핏감이 신체를 더욱 돋보이게 해드릴 뿐 아니라 고온, 다습한 날씨에도 몸에 들러붙지 않아 등산, 골프, 사이클, 조깅 및 일상복으로 쾌적하게 착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이다. 고기능성 소재로 고도의 통기성이 우수하며 빠르게 건조되어 항상 끈적임 없이 쾌적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양방향 탄성을 가지고 있어 어떠한 운동 시에도 편안한 착용감 및 활동성을 보장한다. 뛰어난 신축성을 자랑하는 고급원단 소재 사용으로 신체 온도를 유지시켜 드리며 원단의 흡습, 속건 기능이 있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시켜주는 필수 아이템이다. 100% 국내생산으로 품질이 뛰어나며 초경량 소재 사용으로 입는 순간부터 시원한 착용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제품 불만족시 일주일 이내 100% 교환, 환불을 보장한다.

사이즈 95, 100, 105, 110 **티셔츠5종** ₩149,000 → **₩39,800** (택배비 2,500원 구매자 부담)

전국주문전화 : 1588-4930 **쇼핑몰** : www.PLX24.com **입금계좌** : 우리 1005-802-359666 **예금주** : 폴록스(이상재)

아침산행 후 바로 출근할 수 있는 일석이조 3계절용 아이템!

멀티아웃도어 크로스오버 바지 1 + 1 49,800원



네이비 그레이 블랙

기능성 · 스타일 · 활용성 모두 겸비!

아침산행 후 바로 출근할 수 있는 바지가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출퇴근시에는 정장스타일로 아웃도어 활동시에도 안성맞춤인 멀티아웃도어 크로스오브 바지는 기능성원단을 적용하여 땀은 흡수후 빠르게 건조시키고 쾌적함을 유지시켜주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스판 소재로 정장용·레져용·일상복으로 모두 입을 수 있게 디자인 되어 일반 바지보다 활용성이 뛰어나다. 허리부분에 주름밴딩 장착으로 숨 쉬는 바지 기능을 추가하여 30~70대 남성들에게 두루 인기를 끌고 있다. 신축성이 좋고 스타일도 좋아 요즘 같은 계절에 딱 맞는 상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세균과 땀 냄새까지 억제하는 멀티아웃도어 바지는 산행 후 바로 출근할 수 있어 등산·낚시·골프 등 야외스포츠 및 정장스타일로 입으시려는 남성분들에게 더욱더 안성맞춤인 바지이다.

사이즈 30, 32, 34, 36, 38, 40

바지 1 + 1 세트 ₩208,000 → **₩49,800**

(택배비 2,500원 구매자 부담)

전국주문전화 : 1588-4930

쇼핑몰 : www.PLX24.com

입금계좌 : 우리 1005-802-359666

예금주 : 폴록스(이상재)